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에 한국팀의 두 번째 골을 넣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손흥민 ‘손커밍데이’... “독일서 인종차별 당했다” 고백

어릴 때 독일에 가서 힘든 생활
월드컵 독일 이긴 ‘카잔의 기적’
A매치 100번째 출전 칠레전
푸스카스상 번리전 잊지 못해

손흥민은 “이유가 사실은 되게 많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세계랭킹 1위라는 독일 팀을 이겨서, 내 기억에 남는 경기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이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 독일에 갔다. 상상하지도 못할 힘든 생활을 진짜 많이 했다.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든 생활을...”이라며 기억을 되새겼다.
이때 잠깐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하늘도 슬픈가 봐요”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독일에서) 엄청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이거를 꼭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마음속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에서 독일이라는 팀을 만났을 때 엄청 무섭고 두려웠다. 우리 선수들이 진짜 잘해줘서 이겼다”면서 “사람이 울면 위로해주고 싶고, 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독일 사람들 우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해 줄 수 있어서 참... 그래서 저한테는 (독일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동북고 1학년이던 2008년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입단하며 ‘축구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독일에 축구를 배운 손흥민은 독일에서 프로로 데뷔해 함부르크, 레버쿠젠에서 2016년까지 뛰었다. 이어 잉글랜드 토트넘으로 이적해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우뚝 섰다.
손흥민이 어린 시절 유럽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경험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KIA 8월에는 완전체 위기의 7월을 넘겨라



KIA 타이거즈가 ‘8월 완전체’를 목표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KIA는 지난 2일 SSG 랜더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외국인 선수를 잃었다. 소크라테스가 김광현의 공에 얼굴을 맞으면서 코뼈 골절 부상을 입은 것이다.
선 놀린 중야리 근육 파열을 당해 재활 중이고,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로니 윌리엄스는 웨이버 공시가 됐다. 로니의 대체 외국인 선수인 토마스 파노니는 비자 발급 문제로 아직 정식 등록을 하지 못했다.
시즌 내내 두 외국인 투수가 부진과 부상으로 돌아다니며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타선의 핵심 소크라테스까지 이탈하면서 KIA의 엔트리에는 외국인 선수가 없다.
위기의 7월이지만 희망의 8월을 위한 움직임은 이뤄지고 있다.
일단 소크라테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수술을 마쳤다. 김중국 감독은 5일 KT전에 앞서 “소크라테스가 오늘 수술을 받았다. 코만 골절 부분이 있고, 부기가 빨리 빠져서 수술이 잘 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소크라테스는 1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를 체크하면서 복귀를 준비하게 된다. 복귀까지 4~5주 가량이 예상된다.
파노니의 출격 준비는 끝났다.
김중국 감독은 “파노니가 어제 볼펜 피칭을 했

외국인 선수 없는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코뼈 수술 마쳐 복귀까지 4~5주 예상 선 놀린 올스타전 이후 복귀 파노니 출격 준비 완료
다. 오늘은 룬토스만 가볍게 했고,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 등판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 오기 전에 도 선발로 투구를 하고 와서 최고 5이닝 80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노니가 스타트를 끊게 되는 외국인 선수들의 전력 재가세, 다음 주자는 놀린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몸담들기에 돌입한 놀린은 실전까지 고려하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마운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3명의 외국인 선수가 순위 싸움을 위해 전원 의기투합할 수 있는 시점은 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국 감독은 “7월 승률이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목표다. 선수들도 외국인 선수들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앞서 외국인 선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잘해줬다. 파노니가 로테이션 합류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상 없이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영 “미친 선수 되고 싶다”

“미친 선수” 제가 되고 싶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아기호랑이’ 김도영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발톱을 세웠다.
KIA는 수도권 9연전에서 2승 7패의 암담한 성적표를 받아두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7연패에도 팬들을 웃게 한 장면은 있었다. 김도영의 프로 데뷔 홈런과 2호포가 그 장면이다.
김도영은 지난 1일 SSG와의 경기에서 대수비로 들어갔다가 5-5로 맞선 7회 첫 타석에서 담장을 넘겼다.
풀아웃에서 최민준의 7구 슬라이더를 밀어친 김도영은 156타석 만에 데뷔 홈런을 장식하면서 그라운드를 돌았다.
그리고 지난 3일 다시 한번 김도영은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1-3으로 뒤진 8회초 1스트라이크 3볼에서 서동민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추격의 홈런을 만들었다.
김도영은 “첫 홈런을 쳤을 때는 문학구장의 펜스가 가깝다 보니까 넘어갈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 투아웃이든 내가 살아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도루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풀아웃 때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공을 강하게 쳤다”며 “두 번째 홈런은 맞는 순간 느낌이 왔는데 오히려 실감이 안 났다”고 웃었다.
‘슈퍼 루키’ 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작한

KIA 수도권 9연전 2승 7패 암담한 성적 속 김도영 맹타 “홈런 치고 뛰니 소름이 돋아”
프로 생활, 기대와는 달랐던 볼을 보냈기 때문에 김도영에게는 자신감을 얻는 홈런이 됐다.
김도영은 “너무 좋았다. 처음 홈런 치고 그라운드 뛰는 데 소름이 돋았다”며 “팀이 이겼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그래도 내가 친 홈런이 역전 홈런, 파라기는 의미 있는 홈런이라서 좋았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물론 선배들도 애타게 기다렸던 홈런. 덕아웃에서는 ‘무관심 세리머니’가 펼쳐졌고, 김도영은 침착하게 카메라를 향해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도영은 “덕아웃 들어가서 하이파이브 해야지 했는데 아무도 없어 무관심 세리머니라고 직감했다. 선배들 하는 것 보면서 카메라에 포즈를 취했다”며 “홈런치고 느낌이 신기했다”고 웃었다.
홈런도 홈런이지만 타석에서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도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도영은 “원래는 타석에서 멀어지면서 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홈플레이트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치고 있다. 공이 더 잘 보인다. 타석에 많이

들어가고, 그 전에 생각도 하나씩 더 좋아진 것 같다”며 “코치님들이 낮은 볼에 속지 않으면 실투가 들어온다고 하셨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유인구는 똑같이 보이는데 잡아진다. 경험이 쌓이다보니 나도 모르게 선구안이 생기는 것 같다”고 달라진 타석에서의 승부를 이야기했다.
김도영의 홈런은 팀 입장에서 반갑다. KIA는 타선의 하락세에다 소크라테스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화력 고만’에 빠졌다. 남다른 스피드의 김도영이 타석에서도 힘을 보태준다면 ‘위기의 7월’을 잘 넘길 수 있다.
팀 상승세에는 분위기를 이끄는 ‘미친 선수’가 탄생하기 마련이다. 김도영은 “(미친 선수) 그게 저였으면 좋겠다”면서도 ‘기분’을 강조했다.
김도영은 “전보다는 나은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 지금 페이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똑같이 하려고 한다. 전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스타전 전까지는 온 힘을 다 쏟아부을 생각이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타석에 신경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제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타격을 생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도영이 9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할 예정이었던 5일 KT전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KIA는 6일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워 연패 탈출에 나선다. KT에서는 테스파이네가 출격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안방에서 경남 상대 승리 도전

5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경남FC를 상대로 승리에 도전한다.
전남은 6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2 25라운드 경남과의 홈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지난 3일 서울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나온 전승민의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 승점 1점을 획득했다.
새 사령관 이장관 감독을 앞세워 ‘용광로 축구’를 표방하는 전남은 서울이랜드전에서 14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 8개를 기록했고, 72%의 볼점유율도 보이면서 달라진 화력을 보여줬다.
이날 극적인 무승부로 전남은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이장관 감독 취임 후 4경기 연속 무승부이기도 하다.
지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전남에는 승리가

필요하다. 전남은 올 시즌 4승 9무 8패(승점 21)를 기록, 9위 자리에 머물고 있다.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이기는 싸움이 필요하다. 자신감은 넘친다.
전남은 최근 달라진 화력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고, 앞선 5번의 맞대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경남에 강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자 이장관 감독의 프로 감독 데뷔전이었던 20라운드 경기에서도 경남과 2-2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며 홈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안방 승리를 노리는 전남은 경남전에서 ‘광양제철소의 날’ 이벤트를 연다.
이날 전남은 광양제철소 임·직원을 초청해 에스 코트 키즈와 경품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달 Wimbledon 8강 환호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Wimbledon 올림피아드클럽에서 열린 Wimbledon 챔피언십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네덜란드의 보틱 판더잔츨프(26)를 물리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